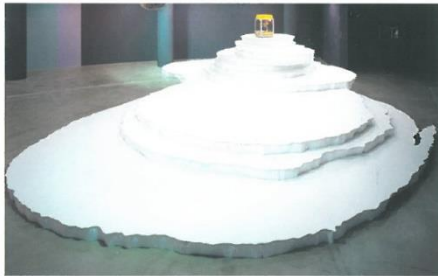


아트선재센터 <커넥트1(Connect 1): 스틸 액츠(Still Acts) – 김소라, 이불, 정서영>

September, 2016



©《이불》 설치 전경, 아트선재센터, 1998, Installation view of Lee Bul at Art Sonje Center, Seoul, 1998. Photo: Rhee Jae-yong, Courtesy: Studio Lee Bul.



©《안타르티카》 설치 전경, 아트선재센터, 2004
Installation view of Antartica at Art Sonje Center, 2004

아트선재센터 <커넥트 1(Connect 1): 스틸 액츠(Still Acts) – 김소라, 이불, 정서영>

아트선재센터가 8월 27일부터 11월20일까지 <커넥트1(Connect 1): 스틸 액츠(Still Acts) – 김소라, 이불, 정서영>을 통해 다시 문을 연다.

이 전시는 아트선재센터의 역사와 소장작품에 대한 연구인 '커넥트' 시리즈의 첫 번째 전시로 김소라, 이불, 그리고 정서영 작가가 참여한다.

'커넥트'는 1998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달려온 20여 년간의 여정을 현재화하려는 시도로 기획된 전시 시리즈다. 개관 이래 미술관 시설 보수를 위해 2005년에서 2006년 가을까지, 두 번째는 2015년에서 2006년 여름까지 총 두 차례 휴관 했는데, 그 첫 번째 '정지' 이전의 시기인 1998년부터 2004년까지를 다루고자한 기획된 전시이다. 개인전을 중심으로 작업의 커미션을 통해 그동안 작가들의 새로운 작업을 소개하고 소장하는 일을 진행해 온 아트선재센터의 활동을 돌아본다.

1층에는 2004년 <안타르티카>에서 선보였던 김소라의 <라이브러리> 프로젝트(2004)가 새롭게 구현되며, 2층에서는 정서영의 개인전 <전망대>에서 보였던 세 개의 작업을 텍스트 작업과 같이 볼 수 있다. 마지막 3층에서는 이불작가의 1998년 아트선재센터의 첫 번째 개인전에서 보였던 <사이보그>와 설치가 어려웠던 <화합>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보여진다.

이 세 명의 작가들은 여성작가라는 공통점 외에도 각기 그 시대의 동시대성을 고민하고 저마다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던 작가로 미술관의 소장품이 된 과거 작업과 전시를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, 새로운 읽기, 재맥락화를 통해 미래의 논의를 펼치고 있다.

2016. 8. 27 - 11. 20 | 02-733-8945 | artsonje.org